

# “고정 수입 없다” 광주·전남 비임금근로자 증가

### 지난해 56만6000명으로 2년 연속 늘어...산업 기반 열악 전남, 27년간 17개 시·도 중 최고

지난해 전국 비(非)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광주·전남 비중은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농수산 이외 산업 기반이 빈약한 전남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 1994년부터 27년 동안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전국 비임금근로자는 65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3.9%였다.

이 비중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전국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말한다.

이 비중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정체를 보인 반면 임금근로자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전국적 추세와 달리 광주·전남지역 비중은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 비임금근로자 수는 광주 17만7000명·전남 38만9000명 등 56만6000명으로, 지난 2016년(58만2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년(54만8000명)에 비해서는 3.3%(1만8000명) 가량 많은 규모다.

전체 근로자 수에 대비한 비중도 2년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8%(74만5000명 중 17만7000명)으로, 2019년(23.3%)과

2020년(23.7%)에 걸쳐 2년째 오름 추세다.

전남 비임금근로자는 전체(98만5000명) 대비 39.5%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 비중은 모두 38.1%였다.

광주와 전남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2년 전보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각각 1.5%포인트, 1.4%포인트 늘어났다.

광주와 전남은 제조업 등 고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산업 기반이 부족하면서 8개 특·광역시, 9개 도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전남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39.5%로, 전국 평균 23.9%를 훌쩍 넘었다.

이 수치는 9개도는 물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광주 비중(23.8%)도 부산(25.7%)에 이어 8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 1994년부터 27년 동안 전국 최고를 유지해왔다.

17개 시·도 통계를 공개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충남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전남이 1위 자리를 꿰찼다.

전남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989년 64.5%, 1993년 59.5%, 1994년 59.9%, 2000년 58.3%, 2010년 45.5%, 2015년 40.4%, 2020년 38.1%, 2021년 39.5% 등으로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국내에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8위였다.

미국(6.1%)의 4배가 넘고 일본(10.0%)의 약 2.5배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46.47 (+1.41)
↓ 코스닥	895.27 (-4.13)
↑ 금리(국고채 3년)	2.303 (+0.066)
↓ 환율(USD)	1197.70 (-3.00)

## 오이값 30% '경충'

### 개당 1300원...애호박도 올라

겨울 한파로 오이 1개 가격이 1300원, 애호박은 2500원으로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7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주요 농산물 소매가를 조사한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 2203호'를 8일 발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파로 생육이 부진한 오이와 애호박 가격은 2주 전보다 각각 30%, 8.7% 올랐다.

취침오이 10개 가격은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3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애호박 1개 가격은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광주전남본부 측은 "한파로 인한 생육여건 악화로 오이, 호박 등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며 "수확 인력이 부족한 탓에 생산비가 올라 간 영향도 받았다"고 말했다.

딸기 가격은 100g에 2500원으로, 2주 전(2700원) 보다는 18.5% 내렸지만 1년 전(1500원)에 비해서는 46.7% 높은 가격이다.

기상악화로 인한 어획량이 감소한 고등어는 1마리 가격이 2주 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20% 뛰었다. 달걀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회복으로 내림세(30개 6230원→6000원)를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3조7160억원

### 광주조달청, 올 목표액 확정

광주지방조달청은 올해 조달사업 목표액을 전년 실적보다 3.6% 증가한 3조716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사업 목표액은 전년 실적(3조5856억원)보다 3.6%(1304억원)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로 내자(內資)구매 3조446억원, 시설공사 6714억원 등으로 나뉜다.

광주조달청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 올해 계약 목표액의 63% 가량인 2조3411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달 수수료를 1분기에는 10%, 2분기에는 5% 깎아주는 특례를 시행하고, 계약 절차 소요 기간도 최대한 줄여주기로 했다. 또 주기적으로 조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수요기관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다 담을 ‘레이’~”...1인승 밴 나왔다



### 기아, 국내 첫 출시...운전석 외 시트 없애 1628ℓ 적재 가능

기아는 다목적 모델로 활용이 가능한 '레이 1인승 밴'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레이 1인승 밴은 국내 최초 1인승 차량으로,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국내 승용차와 상용차 모델 가운데 1인승으로 인준받은 것은 레이가 처음이다.

레이 1인승 밴은 앞으로 출시할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Purpose Built Vehicle)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모델로, 다양한 공간 활용성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한다. 레이 1인승 밴은 기존 2인승 밴 모델에서 동승석 시트를 제거하고 하단에 별도 수납공간을 마련하는 등 최대 화물 적재용량을 1628ℓ로 확대했다. 동승석 발판 부분에는 운전자 개인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적재공간이 마련됐다.

경차 밴 모델 가운데 최대 공간성을 구현했다.

2인승 밴보다 화물 적재 면적은 30%가량 증가했고, 적재 바닥의 최대 세로 길이는 1.913m로 성인 1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다. 최대 적재 가능 무게는 315kg으로 26%(65kg) 늘어났다.

동승석 시트뿐 아니라 동승석 뒤쪽의 하단 격벽을 없애 오른쪽 문을 모두 열면 진입공간 폭이 넓어져 화물 상하차가 더 편리해졌다.

레이 1인승 밴은 프레스티지와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 2개의 트립으로 운영된다. 프레스티지 스페셜에는 운전석 열선시트,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 등 운전자 편의사양이 추가됐다. 가격은 프레스티지 1305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345만원부터 시작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범죄피해자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은 최근 전남경찰청(청장 박지영)을 찾아 범죄피해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전남 농협, 학교 급식용 해남 바나나 첫 출하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8일 해남군 소재 바나나 재배농장에서 전남산 바나나를 광양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첫 출하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출하식에는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장승영 농협중앙회 이사(해남농협 조합장), 장진호 광양원에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출하 물량은 50kg으로 광양지역 학교에 납품된다. 이후 바나나 수확이 종료되는 4월까지 약 2을 공급할 예정이다.

바나나는 전남농협이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굴한 신소득작물이다. 해남, 강진, 진도, 완도, 보성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8개 농가가 2만㎡에 3000여 그루를 무농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

다. 이들 농가는 연간 100여 t을 생산하고 있다.

전남산 바나나는 수입 바나나와의 가격 차이,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농가 자체 통신판매와 로컬푸드직매장 등 소규모 시장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전남농협은 지난해부터 자체 아열대 브랜드인 '오매향'으로 군남, 이마트, 하나로마트, 온라인시장 등으로 바나나 판매처를 확대해 가고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전남산 바나나는 수입산과 비교해 맛과 향이 뛰어나다"며 "임산부구려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자 발굴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형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 질환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역 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062)720-2000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일 제190816-총-388919